

《傷寒論》 三陰 三陽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朴贊國

I. 緒論

우리는 事物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存在의 인식을 色이나 形體로 시작하지만 점차 事物의 變化를 인식하게 되면, 形體이전에 변화의 主體가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된다. 즉 단순히 色界의 形體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氣를 거쳐,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理의 존재도 동시에 인식케 된다.

실제 事物의 변화에 있어 형체의 변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内部에 숨어있는 氣나 精神이 그 변화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醫學은 형체의 疾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체가 비록 꼭두각시라 하지만 이 형체의 변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형체의 변화는 陰陽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三陰三陽(陰陽)이 이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연구하기에 앞서 三陰三陽의 本質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나아가 太陽, 陽明, 少陽

病의 특징을 開闔樞의 이론에 의하여 분석종합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II. 本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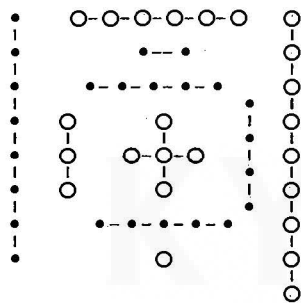
1) 三陰三陽의 本質

《周易》에 보면 河圖와 洛書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河圖를 先天圖라 하고 洛書를 後天圖라 하고 한다. 여기서 先天圖라 하는 것은 들어난 現象世界가 아닌 陰陽과 五行이 완벽한 調和를 이룬 本質의 세계를 取象한 그림이며, 後天圖는 陰陽과 五行이 分化 發展하고 있는 現象世界를 나타내는 그림이다.¹⁾

1. 《原本周易》, p.6, 朝鮮圖書株式會社. “邵子曰 圓者 星也 曆紀之數 其肇於此乎. 方者 土也 畫州井地之法 其放於此乎. 蓋圓者 河圖之數 方者 洛書之文 ……朱子曰 天地之間 一氣而已 分而爲則爲陰陽 而五行造化 萬物終始 无不管於是焉. 故 河圖之位 一與六 共宗而居於北

河圖를 보면, 이는 北, 南, 東, 西와 中央에 1·6, 2·7, 3·8, 4·9, 5·10이 一陰一陽씩 짝을 이루어 北에서 東, 南, 中央, 西의 방향으로 五行 相生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方位에서 陰陽이 짝을 이루어 安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적으로도 水는 北에서, 火는 南에서, 木은 東에서, 金은 西에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서 中央 5·10의 지휘와 감독에 그대로 順應하고 있다.

河圖表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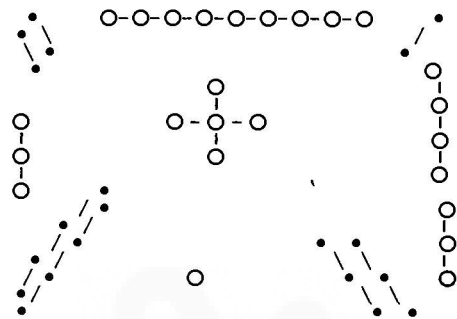
즉 이는 植物에 비하면 內部에 온전한 生命力을 潛藏하고 發芽하기를 기다리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強力한 中央의 10土 즉, 10無極의 主宰下에 統一을 이루고 있는 世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洛書는 北, 南, 東, 西에서 陰陽이 각각 分離되어 1, 3, 7, 9만 正方位에 남고 6, 8, 4, 9는 間方位로 물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中央의 10

…… 蓋所以爲數者 不過一陰一陽一奇一偶 以兩其五行而已. …… 曰河圖 以五生數 統五成數而同處其方 蓋揭其全 以示人而 道其常數之體也 洛書 以五奇數 統四偶數而各居其所 蓋主於陽 以統陰而肇其變數之用也.”

은 아예 그 자취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陽이 陰의 束縛을 벗어던지고 活潑한 分裂과 發達을 持續하고 있는 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洛書表二



그러면 三陰三陽의 本質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河圖와 洛書의 이러한 象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五行이 《周易》의 先天圖와 같이 본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三陰三陽은 洛書처럼 分裂, 發達하고 있는 현상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시의 기후변화를 통하여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오행의 변화를 認知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하여 현상세계의 복잡다단한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즉 五行으로 四季의 基本的인 變化나 生命體의 生老病死의 과정 등의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현상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五行에서 木을 木에 配屬시키고 火를 여름에 配屬시켜 木에는 發生機能이 旺盛하고 여름에는 推進機能이 旺盛하다고 하는데, 이들 發生이나 推進을 陰陽

으로 보면 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生物이 자라는 것을 보면 봄, 여름은 단순히 활발한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는 등의 형태적인 성장도 同時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는 것은 陰의 形化시키는 작용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春夏를 일률적으로 陽이라고만 이름한다면 그 實質을 다뤘다고 하기 어렵다.²⁾

五行에서는 外部로 들어나는 現象世界를 無視하고 단지 陽氣의 生長收藏만을 말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가지고 形이 있는 현상세계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현상을 설명하는 陰陽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본질적인 생명작용 뿐만 아니라 그 외현하는 생명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醫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현상세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三陰三陽(陰陽)의 도입과 응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傷寒論》의 三陰三陽

東洋醫學은 사람이 小宇宙라는 생각에서 天地變化로 일어나는 모든 생성변화가 人體內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自然에서 일어

나고 있는 陰陽變化와 五行運動은 인체 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本質의 生成變化를 보여주는 先天圖는 이를 五行으로 요약할 수 있고, 分化發達된 현상세계를 보여주는 後天圖는 이를 陰陽으로 요약할 수 있듯이, 인체에서도 內部の 實質을 五行 즉 五臟으로 말하였고 外部의 現象을 陰陽 즉 12經絡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체도 宇宙와 마찬가지로 그 생성변화의 과정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관찰한다면, 내부의 五臟六腑와 外部의 12經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외부와 내부를 나누어 본다 할지라도 이들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하나인 것을 인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내부의 五臟六腑는 五神을 藏하고 있으면서 인체의 生命活動을 主宰, 營爲하고 있다.³⁾ 즉 인체의 모든 生理變化의 지시가 바로 이 五臟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五臟의 이러한 생명의 내재적인 활동은 곧바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經絡을 통하여 外顯하게 되니, 이 經絡의 외현하는 작용이 곧 음양의 변화이다. 즉 人體를 구성하고 있는 筋, 骨, 皮, 肉, 血, 脈은 바로 經絡을 통하여 모든 생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⁴⁾ 즉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陰陽변화는 거의 經絡의 존재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체의 모든 陰陽變化는 꼭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233,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이에 대하여 내경에서는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이라 하여 陰陽의 작용이 內外에서 동시에 相補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92, “五臟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4. 朴贊國編譯, 臟象學, p.12, 성보사.

經絡에 의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외현하는 생명현상이 비록, 經絡을 중심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이 經絡이 모든 음양변화를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음양의 변화는 經絡의 기능 뿐만 아니라 五臟의 미묘한 象, 인체 上下·內外의 모든 복잡한 관계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5) 그러므로 外感病을 概括하여 설명하고 있는 《傷寒論》의 六經은 經絡의 六經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꼭 같다고 할 수는 없다.

《傷寒論》의 三陰三陽은 바로 인체의 陰陽變化에서 근거한 것이다. 즉 인체의 內部는 五臟에 의하여 순조로운 五行의 循環運動이 일어나고 외부로는 經絡에 의하여 陰陽變化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의 五臟의 五行循環運動은 잘 들어나지 않고 또, 五臟은 七情의 浪動에 의하여 病變이 주로 발생하지만 傷寒에 의한 外感病은 보다 쉽게 皮, 膚, 筋, 骨 등 인체의 外部에 病變을 일으키므로 마땅히 三陰三陽을 運用하여 변별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즉 三陰三陽은 五行에 비하여 보다 氣的이고 形體적인 것이므로, 六氣등으로 인한 外感病은 반드시 이 陰陽에 먼저 병변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六經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체의

5. 예로 心은 經絡에서 手少陰心經에 配屬하여 陰經에 속하지만 五臟中에서 陽中之陽으로 다시 臟中에는 陽臟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인체의 上部에 위치하여 肺와 더불어 외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함에 따라 外感病의 初期, 陽經이 受邪할 때, 心과 관계된 症狀이 자주 출현한다.

陰陽變化의 차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太陽病은 인체의 太陽機能이 病이 들었다는 말이고, 太陰病은 太陰機能이 病이 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太陽은 太陽經이 그 대부분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太陽病에는 太陽經과 관련된 症狀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太陽病은 바로 太陽經의 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三陽病

인체의 生理는 크게 나누면 陰과 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외부로 부터 飲食을 섭취해야 한다. 섭취된 음식은 人體 內部 正氣의 작용에 의하여 脾胃에서 소화되어 체내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변화되어 쓰이게 되니, 이는 곧 섭취와 소모로 양분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이다. 이러한 것은 생물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즉 기업이나 개인의 모든 활동도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소모함에 의하여 그 생활이나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생리작용은 인체에 필요한 기를 어떻게 벌어서 사용하고 쓰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 할 것이다. 植物이라면 물론 太陽(日)의 氣를 받아 물과 공기 및 기타를 써서, 太陽의 氣를 加工하여 자기의 氣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氣 需要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太陽의 氣를 가공할 能力이 적고 대

부분 植物이나 動物의 氣를 攝取, 消化시켜 쓰고 있다.

이의 과정을 陰陽으로 나누어 본다면, 人體가 이 氣를 벌어들이는 과정 즉, 飲食物을 消化, 吸收 分配, 排泄의 과정은 陽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陽이라고 하고, 일단 벌어들인 氣를 비축하여 다시 쓰는 과정을 陰이라 하고 있다.⁶⁾

1. 太陽病

太陽病은 太陽의 機能이 病든 것이므로, 太陽病을 알려면 太陽機能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三陽⁷⁾은 주로 飲食物의 消化, 吸收, 消耗, 排泄에 관여한다고 하였는데 消化와 吸收는 陽明이 담당하고 있고, 太陽은 주로 그 消耗와 排泄에 관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少陽은 陽明과 太陽의 사이에서 仲介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太陽을 開라 하고 陽明을 闔, 少陽을 樞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陽의 開闔樞는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즉 陰의 보조가 없이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陽經과 陰經사이에 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陽明은 太陰의 도움이 없이는 소화와 흡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太陽도 少陰의 도움이 없이는 소모와 배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少陽도

厥陰의 도움이 없이 증개역활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太陽이 陽의 開闔樞에서는 陽明과 짝이 되어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소모, 배설의 과정에 간여하지만, 반드시 太陽과 表裏관계에 있는 少陰의 精으로부터 陽氣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또한 人體를 營衛함에 있어서도 少陰에서 衛氣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⁸⁾

즉 陽明에서 흡수된 穀氣는 아직 인체가 직접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분화되지 않는 상태이며, 반드시 少陽과 太陽을 거치면서 각기 그 상태에 어울리는 형태로 轉化되어 體溫을 유지한다던지 筋力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陽明에서 少陽, 太陽을 거치면서 더욱 分化된 穀氣는 太陰, 厥陰 등의 陰化작용 의하여 陰속에 舍藏되면 비로소 인체의 精氣나 血氣가 되는 것이다.

太陽이 消耗와 排泄의 작용을 한다는 것은 양명에서 흡수, 전화된 곡기가 태양에서 쓰여지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가 태양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足太陽經이 膀胱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많은데, 太陽의 機能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太陽은 그 기능이 陽明에서 흡수한 穀氣를 消耗시켜야 하므로 자기의 일정한 腑를 가지지 않으니, 이는

6. 六腑는 陽으로 곡식을 受納, 消化하여 吸收, 排泄하며, 五臟은 陰으로 六腑에서 흡수된 穀氣와 天氣로 이루어진 氣血, 津液, 精氣를 사용하여 生命活動을 營爲하고 六腑의 소화, 흡수의 源泉이 되는 元氣를 滋養한다.

7. 六腑는 三陽經에 배속되며, 陽腑이니, 三陽이란 이를 總體的으로 가르킨다.

8. 《靈樞·營衛生會第十八》에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於中焦 衛出出於下焦”라 하였다.

全身이 太陽의 活動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膀胱은 太陽의 活動으로 생긴 廢棄物을 貯藏하기 위한 腑이다.

《內經》에 “氣化則 能出矣”⁹⁾란 말도 바로 穀氣의 消耗가 이루어지면 排泄이 잘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小便이 단순한 물의 배출이 아니고 곡기의 소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太陽의 機能은 바로 곡기의 소모와 배설을 위주로 하여, 나아가 精氣와 血氣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太陽에 異常이 생기면 먼저 穀氣의 소모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곡기가 전변되어 형성되는 精氣와 血氣의 생산에도 錯誤가 발생하게 된다.

곧 精氣와 血氣의 生成은 陽에서 陰으로 氣가 들어가 쌓이는 것인데(氣化而生精血-陰化), 만약 太陽에 이상이 발생하여 精氣와 血氣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少陰이나 厥陰의 精血을 바탕으로 한 氣化(陽氣의 發生-陽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곳에서 太陽, 陽明으로의 陽氣, 衛氣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太陽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행히 平常時 精血의 備蓄이 충분하였다면, 곡기의 소모에 따른 精血의 生産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陽氣, 衛氣의 공급이 얼마간 지속될 수 있다. 이때에는 太陽病이 陽明, 少陽 등으로 傳變되지 않고 2-3일 내에 병이 낳고 말 것이다.

그러나 평소 精血의 비축이 없던 사람이라면, 精血의 生産, 供給이 중단되

면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太陽病이 어떻게 陽明, 少陽으로 전변되는지 생각하여 보자. 外邪에 의하여 太陽病이 발생하였을 때, 辛溫한 藥으로 發汗을 시켜 病邪를 내보내듯이, 인체는 스스로 體溫을 높혀 肺氣를 강화시켜 땀을 내어 病邪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므로 설사 發汗藥을 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外邪에 感하면 많은 津液의 消耗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또한 傷寒病은 體溫의 下降이 그 주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發汗을 시켜 體液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부족한 陽氣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즉 少陰에서는 체온을 높이기 위하여 陽氣의 發生量을 늘리고, 太陽과 陽明에서는 체액의 放出量을 높인다 보니, 太陽에서 陽明으로 病이 전변되면 땀이 많이 나고 脈이 洪大해지며 惡寒대신에 發熱이 따르게 되고, 만약 적절한 處置를 못하여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 下法을 적용하여 胃의 津液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쉽게 燥屎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發汗으로 體液의 減少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少陰의 陽氣가 부족하다면 체온을 올리지 못하고, 少陰에 비축되었던 陽氣가 竭盡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少陰病이나 腹內가 차가워지는 太陰病으로 전변될 수도 있으며, 陽氣만의 과도한 소모로 少陽病을 부르거나 陰血만의 소모로 厥陰病을 부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陽明病, 少陽病의 특징을 알아 보기로 하자.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34,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3. 陽明病

《素問·陰陽離合論》에 “聖人南面而立에 前曰光明이오 後曰太衝이라”¹⁰⁾하였는데, 여기서 光明이라 함은 사람은 앞은 벌어져 넓고 밝다는 뜻이오 太衝이라 함은 뒤는 아직 붙어서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¹¹⁾ 즉 사람이 어미의 뱃속에서 점차 形體를 이룰 때에, 처음에는 손, 발과 머리가 같이 붙어 있다가 점차 손과 발, 머리가 갈라지듯이, 사람은 앞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陰陽의 法則에 의하여 植物이 씨에서 싹이 터서 잎과 줄기, 뿌리를 내지만, 꽃이 피어 열매가 맺으면 다시 씨가 되는 순환을 반복하듯이, 사람에게도 뒤에 太衝이라는 陰極이 있고, 앞에 光明이라는 陽極이 있어 陰陽運動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衝은 씨에 비유되고 光明은 잎, 줄기, 뿌리에 비유될 수 있다.

植物이 發芽할 때는 씨 自體에서 滋養分을 공급받지만 일단 잎이 피고 뿌리가 자라면 스스로 營養을 공급하듯이, 사람도 陰인 太衝에서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을 光明 자체에서 스스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三陽은 음식물의 消化, 吸收, 消耗, 排泄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로부터의 穀氣의 納入에 바로 陽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곡기 輸入의 직접 담당자가 陽明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陽明은 三陽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脾胃를 後天의 本이라 하고 東垣이 補土를 主唱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三陽의 대표 격인 陽明은, 太陽이 病이 들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의 職分에 따라 생산하는 津液을 자기가 쓸 것도 남기지 않고 太陽으로 과도하게 보내게 되므로, 결국은 陽明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陽明은 三陽의 대표이면서 太陽의 어미라고도 할 수 있다. 즉 陽明은 穀氣를 흡수하고 津液을 만들어 太陽의 뒤를 돌보고 있으므로 太陽의 어미요 뿌리가 되는 것이다. 자식이 병들면 어미가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의 병이 나오면 어미가 병을 앓듯이, 太陽의 病을 치료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津液을 소모한 陽明은 太陽病이 풀리면 스스로 病을 앓게 되어 있다.

太陽이 外邪를 구축하기 위하여 津液을 多量으로 消耗해버린 인체는 자연히 氣의 不足에서 津液의 不足으로 즉, 陰(津液)의 不足으로 轉變하게 되므로 자연히 脈이 빨라지고 身熱이 더욱 올라가게 되며 甚하면 大便이 閉塞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體熱의 상승으로 비록 飲食은 잘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津液의 不足 즉 陰의 不足으로 大便이 굳어지고 또한, 大便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熱이 血分까지 미치면 血을 灼하여 瘀血을 下腹에 積하

10. 洪元植, 上揭書, p. 29.

11. 朴贊國,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년, vol.6. 《素問·陰陽離合論》을 중심으로 한 三陰三陽 研究.

게 할 수도 있고, 骨髓에까지 熱이 미치면 精神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陽明은 인체의 陽部 즉 形體를 기르는 주체이므로 太陽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病이든지 陽明에 그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¹²⁾ 그러므로 三陽病 뿐만 아니라 三陰의 病까지도 모두 終局에는 陽明으로 傳變될 수 있는 것이다.

陽明病에서 表症이 남아 있어 桂枝湯이나 麻黃湯을 쓴 예도 있다. 仲景은 비록 表가 아직 풀리지 아니 하였다고 말하고, 陽明症이 나타났다고 하지는 않았지만¹³⁾ 그러나, 이 때는 이미 内部的으로 津液이 소모되어 陽明病의 素質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3. 少陽病

太陽病이 氣病이고 陽明病이 津液病이라면 少陽病은 어떠한 病이란 말인가?

우리의 經濟活動에서 생산과 소비가 중요하지만 생산을 促進시키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流通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消費欲求가 크다 할지라도 적절한 流通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는 결국 중단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인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穀氣를 吸收하여, 그 흡수한 것을 필요한 部分에서 消費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마땅한 유통기관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인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少陽이다.

그러므로 少陽이 病드는 것은 氣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病이 든 이후의 일이다. 왜냐하면 유통기관은 단순히 유통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유통을 위한 保管이나 貯藏을 하고, 이를 적절하게 調整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病이 든 이후라야 이 곳에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少陽이 病들면 寒熱이 往來하는 것도 바로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太陽에서는 陽氣의 不足으로 惡寒이 그 특징적인 症狀으로 나타나고, 陽明에서는 津液 즉, 陰氣의 不足으로 惡熱이 그 특징인 반면에, 少陽에서는 調節機能의 失墜로 寒熱이 왕래하는 것이다. 즉 少陽의 機能이 無力化되므로 인하여 陽氣가 盛하면 發熱이 있다가 終局에 陽氣가 衰하여지면서 陰氣가 성해지면 惡寒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산에 나무가 없고 저수지가 없는 곳에서는 비가 오면 곧 홍수가 났다가 별이 나면 곧바로 땅이 바짝 마르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즉 流通뿐만 아니라 貯藏기능이 少陽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少陽이 病들면 四肢가 無力해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陽明에서 흡수된 곡기가 少陽의 調節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太陽에 이르게 되므로, 發

12. 張仲景, 《仲景全書》, p.120, 大成文化社, “陽明居中土也 萬物所歸 無所不傳”,

13. 張仲景, 上揭書, p.239. “陽明病 脈遲 汗出多 未惡寒者 表未解也 可發汗 宜桂枝湯”

14. 張仲景, 上揭書, p.237.238

熱이 낮다가 그 곡기가 다 소모되어 버리면 곧 惡寒이 뒤따르게 되고, 또 반대로 저축하여 필요한 때에 陽氣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惡寒이 오게 되고 그러면, 陽明이 열리면서 곡기가 太陽에 이르게 되어 發熱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필연적으로 穀氣와 陽氣의 소모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氣의 부족으로 四肢無力등의 현상이 오는 것이다.

그 외에 少陽의 調節機能의 실추로 氣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咳嗽, 大小便不利, 睡眠障礙, 頭痛, 九竅不利, 腰痛, 手足痛, 肩背痛 등의 여러가지 증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少陽病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15)

4. 三陽病의 開闔樞

太陽을 開라 하는 것은 太陽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항상 열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 인체의 氣가 남아 날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開라는 뜻은 무엇인가? 나는 開를 밖으로 열리는 門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즉 太陽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밖으로 門이 열리면서 氣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門에 밖으로만 열리고 안으로는 열리지 않는 門 즉,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 올 수는 없는 門이 있듯이 太陽의 門은 나갈 수만 있는 門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陽明을 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는 門이라는 뜻으로 보고 싶다.

15. 張仲景, 上揭書, p.165. “或 胸中煩而不嘔 ……或咳者”

그리고 少陽의 樞는 開와 合의 사이에서 調節作用을 하는 緩衝機能이라 할 것이다.

三陽의 開闔樞가 이렇게 穀氣의 吸收, 消耗, 調節을 하는 것이라 한다면, 三陰의 開闔樞는 精氣에 대한 이 세가지의 작용을 가르킨 것이라 할 것이다.

三陰三陽을 論하면서 開闔樞를 언급하는 것은 穀氣와 精氣의 흐름을 알면, 疾病의 實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나아가 辨證處方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三陰에서도 精氣가 腎에 있다 할지라도, 太陰으로 열리지 않으면 脾의 陽氣가 부족하게 되어 飲食未振, 腹痛, 泄瀉가 올 수 있고, 肺의 陽氣가 부족하게 되면 咳嗽, 鼻塞, 惡寒이 오고甚하면 頭痛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太陰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腎에 藏한 精氣가 부족하다면, 精氣의 消耗를 막기 위하여 脈은 微細하여지고 자꾸 잠을 자려 할 것이다. 또한 精氣가 부족하므로 三陽에서의 陽明病과 같이 크게 보면 陰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手足이 冷한 陰證으로 있다가 쉽게 發熱하는 熱證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少陰病은 寒證이면서도 언제든지 熱證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厥陰病은 少陽病과 마찬가지로 精氣의 調節과 緩衝作用이 파괴된 것으로 少陽보다 더욱 精氣가 고갈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少陽病의 寒熱이 왕래하

16. 張仲景, 上揭書. p.320. “少陰病得之 二三日 口燥 咽乾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는 症狀 대신에 아예 寒과 熱이 섞여있는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氣가 下하면 泄瀉가 날 수 있고, 上하면 上衝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泄瀉가 나다가도 大便이 막힐 수도 있다. 여하튼 血氣의 枯渴에 兼하여 精氣가 고갈로 經絡뿐만 아니라 臟腑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精神的, 肉體的 安定을 취하여 장기간 요양을 해야 할 病이다.

III. 結 論

萬物이 精神이 內에 安在하고 形體가 外에서 分裂, 發達하고 있듯이, 우리 인체도 內에 五臟六腑가 있어 精神을 갈무리하고, 外에 經絡이 있어 그 변화가 陰陽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은 바로 밖으로 드러난 형체의 변화를 陰陽으로 관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형체

에서도 다시 內外의 차이가 있어 陰陽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그 內와 外에서도 機能의 구별이 있어 開闔樞의 직분에 따라 三陽과 三陰이 나뉘게 된 것이다.

精神을 분리시킨 인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일단 形體만을 분리하여 볼진데 氣가 우선이므로 三陽病은 氣의 盛衰가 그 열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三陽病에서 太陽病이 陽氣의 不足이 그 특징이라면, 陽明病은 津液의 不足을 들 것이며, 少陽病은 氣의 調節과 陰陽의 緩衝作用의 失墜라 할 것이다.

三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太陰病은 精氣의 衰함이요, 少陰病은 陰精의 不足이며, 厥陰病은 陰精의 枯渴에서 온 陰陽調節의 不實과 緩衝作用의 不在에 緣由한다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原本周易》, 朝鮮圖書株式會社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년, 서울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년, 서울
4. 朴贊國 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년, 서울
5. 原典醫史學會 《原典醫史學會誌 1992년》, 1992년, 서울
6. 張仲景 《仲景全書》, 大成文化社, 서울